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시므온, 나오미 선교회 주관 예배입니다.

8일(화) 청년부의 김원중 청년이 아체로 1년 6개월간 평화복무를 위해 떠납니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후원차집에 후원해주신 금액은 1,788,9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구용산지방 남선교회 계삭회가 10일(목) 오후 6시 상동교회에서 있습니다.

단양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마늘을 예약판매합니다.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1층 로비에서 신청해주세요. (3kg에 38,000원)

지금 농촌은 김매기가 한창입니다. 우리도 주변의 정리정돈과 마음의 김매기에 힘써 봅시다.

창 24:34~38 시 45:10~17 롬 7:15~25a 마 11:16~19
--

마태복음 16:13-20
---------------

오늘 식당 봉사 : 이형숙 곽혜자 장은숙 이명희 강영님 문홍일 박호규
다음 주 식당봉사 : 안홍숙 임영선 이증자 이수정 박정숙 홍순구 최재욱
오늘설거지봉사 : 아동부교사
다음주설거지봉사 : 중고등부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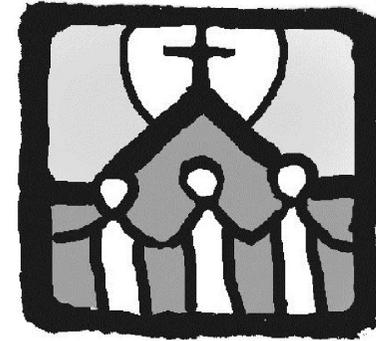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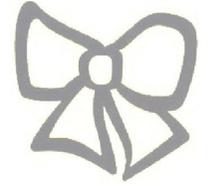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시간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절반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절반의 시간을 감사와 깊은 반성 가운데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절반의 시간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더욱 주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중국, 한국, 일본, 북한 사이에 새로운 긴장과 갈등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또 한 번의 전쟁은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주님, 이 나라들이 각자의 이권만을 위하지 말고 함께 평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서효진 선생  
김훈동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강순배	강인식	김정숙	권미정	김경혜	김남종	오복순
김범진	김미현	김애경	김영아	김인걸	문영혜	김정민	이혜경	김준호
곽혜자	김중수	이순정	김혜진	김훈동	유경순	류준모	심호선	문홍일
이미혜	박규석	박경선	박범희	박미영	박옥식	박창운	허정윤	방문성
박혜경	배재경	이수정	신진식	변혜정	안종일	정현주	오미숙	오재형
임고운	오진훈	노순옥	왕수명	윤성종	김윤정	윤주원	최윤선	이계선
이소순	이동천	이민범	공재량	이범석	류정욱	이성범	권혁순	이재문
이재훈	임승동	백혜숙	임영	정경례	임주빈	최현옥	장영숙	장재영
김재영	정복순	정연희	정우선	정원석	김현영	조경자	최미자	하정석
이명희	하현철	최성애	한상균	한완식	임정자	홍순복		

### 감사헌금

강순배	김진중	신진식	변혜정	안종일	정현주	이범석	류정욱	이은빈
이재문	임명희	전인섭	전정현	주명재	한성자	한미영	홍성식	이유리

무명7

### 생일감사헌금

조향미

### 녹색꿈헌금

김용진 박효선 무명1

	백혜숙	박성희	조순덕	백혜숙
	신진식	최경미	임정자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장영숙	문영혜
	노순옥	진정숙	조병주	노순옥
	박홍재	박홍재	김경수	야외
	권미숙	박미영	배삼순	박미영
	김금순	김금순	오복순	유금주
	곽권희	윤수진	곽권희	윤수진
	안홍숙	오현정	이수옥	김명희
	정영선	홍춘숙	정영숙	김희우
	박혜경	박혜경	정현	심상숙
	김재흥	오자영		
	김재흥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종		

# 희망

- 나태주

날이 개면 시장에 가리라  
새로 산 자전거를 타고  
힘들여 페달을 밟으며

될수록 소로길을 찾아서  
개울길을 따라서  
흐드러진 코스모스 꽃들  
새로 피어나는 과꽃들 보며 가야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자전거에서 내려  
약수를 청하며 인사를 할 것이다  
기분이 좋아지면 휘파람이라도 불 것이다

어느 집 담장 위엔가  
넝쿨콩도 올라와 열렸네  
석류도 바깥세상이 궁금한지  
고개 내밀고 얼굴 붉혔네

시장에 가서는  
아내가 부탁한 반찬거리를 사리라  
생선도 사고 채소도 사 가지고 오리라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사십시오. 무거운 탐욕과 걱정의 짐을 벗어놓고 마음을 편하고 가볍게 하고 주님을 따라 사십시오.

아멘.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욕심을 따라 살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그동안 힘들게 지고 살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멍에, 진리와 자유의 멍에를 메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시므온 나오미 선교회 주관 예배 설교 : 장영숙 전도사	설교 : 신진식 전도사 기도 : 권미숙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신진식 전도사	공동기도 안길상 권사	양상철 선생 서수진 집사

7	영접위원	박성실 허호범 김훈동 유경순 박경원 박시내
	헌금위원	한상익 장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믿음으로 읽는 글

## 성숙을 향해 달리는 가장 빠른 말

“그럼 어디 한 번 볼까요?”

저는 환의를 갈아입고 한애리 선생님에게 제 몸을 맡겼지요. 선생님은 제 가슴을 만지시더니, 오늘 아예 맘모(유방촬영)와 초음파를 한꺼번에 하자고 하셨어요. ...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해야 확실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암인 것 같아요. 일단 정확한 검사를 위해 MRI 촬영을 해야겠어요.”

저는 선생님 입에서 떨어진 암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암이라니!

그 순간 저는 문득 초등학교생인 딸 다영이가 눈에 밟혔습니다. 늦어진 결혼으로 얻은 유일한 혈육, 홀로 나만 바라보고 자라는 딸아이를 생각하니 갑자기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앞이라 민망했지만, 쏟아지는 눈물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다가와 저를 끌어안으시며 말씀하셨지요.

“김 선생님, 미리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암을 이긴 사람도 많으니까요.” ...

저는 다음 날 조직검사를 한 후, 이틀 뒤 암으로 확진을 받았지요. 유방암 3기. ...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어린 딸 다영이를 일찍 재운 뒤에 말입니다. 선생님은 암을 극복한 사람도 많다고 위로해 주셨지만, 왜 하필 내가 그런 큰 병에 걸렸는지,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한창 일할 나이에 이런 시련이 오는지, 앞으로 얼마나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 머무를 수 있을지..... 저는 무려 8차에 걸친 항암치료, 49번이나 되는 방사선치료를 통해 유방암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얻었지요. 물론 그 긴 치료과정은 형언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그것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비유하곤 했는데, 수술이 홍해를 건넌 것이라면 항암과 방사선치료의 과정은 광야생활 그것이었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 고통스런 광야생활을 잘 이겨 낼 수 있도

록 힘을 불어넣으신 분은 바로 선생님이셨죠.

한애리 선생님, 선생님이 보여 주신 그런 삶의 방식은 제 인생에도 큰 자극이 되었지요. 본래 저는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경영학을 전공한 저의 이력도 한몫했지요. 저는 직장에서 숫자를 다루는 일을 하는데, 정확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내 잣대로 남을 평가하길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제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주체적인 삶을 살되, 타인을 무시하거나 내 잣대로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 타인의 삶을 배려할 줄 아는 주체가 되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암투병을 하고 난 후의 가장 큰 변화는 ‘나 중심주의’에서 ‘그분 중심주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암에 걸리기 전에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품만 그럴 듯한 장식적인 신앙생활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어찌구 떠벌리며 기도를 하긴 했으나,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항상 제 뜻을 앞세웠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처럼 살려고는 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 제 뜻은 접어두고 하나님이 제게 바라시는 뜻, 예수께서 가르치신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변화 때문일까요, 지금 고등학생이 된 다영이는 세상에서 아픈 이를 돌보고 치료하는 외과 여의사의 꿈을 꾸고 있어요. 얼마 전 <울지마 톤즈>라는 이태석 신부님의 영상물을 본 이후로는 의료선교사의 소명도 품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제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참 놀라운 선물을 주셨구나 생각하며, 그 헤아릴 수 없는 신비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던가요? 고통은 존재의 성숙을 향해 달리는 가장 빠른 말馬이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지금도 한없이 나약하고 미숙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다만 제가 겪은 그 지독한 아픔을 통해서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 같다고 생각하지요. 제가 이런 공감의 힘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거야말로 제가 고통을 통해 얻은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겠지요. 사실 이전에는 이런 것을 선물이라고 여기지 않았거든요. ...

- 고진하, 「다시 뛰는 생명의 북소리 쿵쿵」 중에서